

GYEONGNAM

2009.06 VOL.004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경남메세나협의회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면

첫번째_ 기업이 행복해집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향상됩니다.

두번째_ 직원이 행복해집니다.

문화예술의 힘으로 창의적인 기업 문화가 조성되고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세번째_ 고객이 행복해집니다.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올라갑니다.

네번째_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하시면

-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 문화컨설팅 서비스 제공
- 문화마케팅 세미나 등을 통하여 기업의 창조경영, 문화경영 지원
- 메세나 매거진 및 언론을 통한 회원기업의 메세나 활동 홍보
-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회비나 문화예술단체
결연 지원금은 물론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지정기부금 처리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 인 :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
- 개 인 : 연간 소득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

가입방법	▶ 입회신청서 1부 제출
연 회 비	▶ 기 업 : 연 2백만원 이상
	▶ 개 인 및 문화예술단체 : 연 1백만원 이상



Contents

휴(休)	04
예술과 삶	06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10
기업과 예술의 만남	13
줌 인 메세나	24
찾아가는 공연	26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27
예술의 희망이야기	28
문화와 나	30
지상강의	32
메세나 사업소개	36
문화 파발마	40
신규 임원 및 회원 소개	42



경남메세나 통권004호

| 발행인_문동성 | 발행일_2009. 06. 15.
| 발행처_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경남메세나협의회
| Tel_055-285-5611 | Fax_055-285-5610 www.gnmecenat.or.kr
| 편집인_손갑동 | 사진_최재균 | 기획·편집_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_055-296-4995
| 인쇄_(주)화성 Tel_055-295-4995



업어 준다 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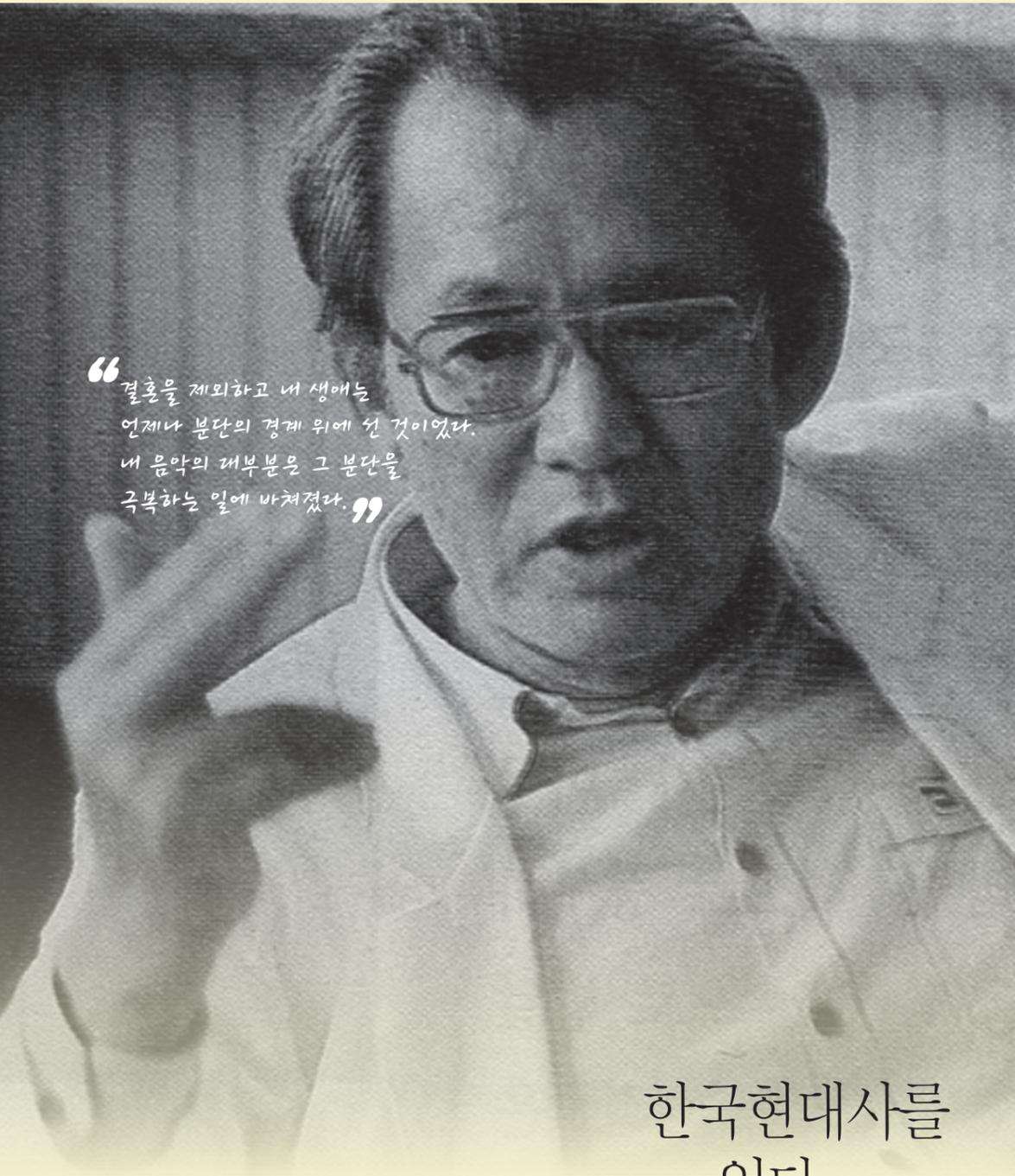
저수지에 빠졌던 검은 염소를 업고
노파가 방죽을 걸어가고 있다
등이 흠뻑 젖어들고 있다
가끔 고개를 돌려 염소와 눈을 맞추며
자장가까지 흥얼거렸다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희고 눈부신 그의 숨결을 듣는 다는 것
그의 감춰진 울음이 몸에 스며든다는 것
서로를 찌르지 않고 받아준다는 것
쿵쿵거리는 그의 심장에
등줄기가 청진기처럼 닿는다는 것

누군가를 업어준다는 것은
약국의 흐릿한 창문을 닦듯
서로의 눈동자 속에 낀 슬픔을 닦아주는 일
흩어진 영혼을 자루에 담아주는 일

사람이 짐승을 업고 긴 방죽을 걸어가고 있다
한없이 가벼워진 몸이
젖어 더욱 무거워진 몸을 업어 주고 있다
울음이 불룩한 무덤에 스며드는 것 같다

■박서영 (시인)
경남 고성 출생. 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 받음.
경남문학 우수작품집상 수상. 시집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



“결혼을 제외하고 내 생애는 언제나 분단의 경계 위에 씌어 있었다. 내 음악의 대부분은 그 분단을 극복하는 일에 바쳐졌다.”

한국현대사를

윤이상, 읽다.

글_ 이달균

상처 입은 용

윤이상은 자신을 '상처 입은 용(龍)'이라고 말했다. 『윤이상- 루이제 린저의 대답』이란 책에서 자신이 밝힌, 어머니의 태몽을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지리산 자락을 용 한 마리가 날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용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 상처 입은 용은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윤이상의 영광과 상처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넓게는 음악의 혼을 심어준 도시 통영의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한국현대사의 모습이다. 잘 알다시피 윤이상은 예기치 않은 '동베를린 간첩단사건'(동백림사건)에 연루되어 그토록 돌아오고 싶은 조국에 오지 못하고, 타국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였다. 작곡가 윤이상의 명성은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에 알려졌지만 그에 비해 삶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필자가 찾아가 본 윤이상의 생가인 통영시 도천동 157번지 골목 앞에는 '윤이상 테마파크'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이 골목은 당시엔 바다와 연한 길이었다. 대문을 열면 바로 바다에 닿은 집이었으므로 어촌 통영의 유년시절을 늘 회상하곤 했다.

통영의 서정성 가득한 정경은 훗날 작곡한 음악 속에 오롯이 살아있다. 오광대놀이와 집안의 액운을 쫓는 주술제 무당굿, 연날리기, 미륵산 기슭의 절에서 본 만등제 등등은 선생의 작품 도처에 그려져 있다. 1971년에 발표한 나모(南無)는 이런 유년시절의 체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일제 때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였지만 이런 민족적인 것은 민족적 자각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윤이상이 다닌 소학교인 통영공립보통학교 건물은 세병관이었다. 카메라를 들고 오랜만에 세병관을 찾았다. 국보 제305호의 중요한 유적으로 정식명칭은 통영세병관(統營洗兵館)이다. 퇴락한 단청이 더욱 고색창연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여덟 살 난 어린이에게 세병관은 남다른 정서를 키워주기에 충분하다. 이곳에서 전혀 낯선 음악인 오르간 소리를 들었다. 아름다움을 넘어 놀랍고 흥분이 밀려왔다. 소위 서양음악이란 것을 처음 접한 것이다. 열세 살 때엔 이웃의 한 청년이 가진 바이올린을 쳐 보았고 이내 음악은 운명이 되고 말았다. 어린 날 그가 작곡한 곡이 무성영화 극장에서 연주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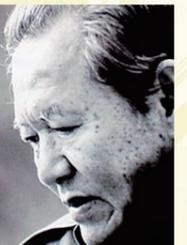
윤이상, 동양을 넘어 유럽의 하늘을 날다

보통학교 졸업 후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로 접어든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통영협성상업학교에 진학했지만 음악의 꿈은 그를 그냥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2년 후 서울로 올라가 프란츠 에케레트란 독일인 음악인의 제자에게 화성학을 공부하는 한편 서양 고전 음악을 독학한다. 1935년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사카의 상업학교에 입학하였고, 시간을 내어 오사카 음악학원에서 첼로, 작곡, 음악 이론을 배웠다. 한편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에 대한 억압을 보면서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의식도 함께 갖게 되었다.

모국어는 편안하다

윤이상

내가 조국인 대한지 32년, 소위 동맹일시엔 이 있으니 21년, 이렇기 독일은 출판된지 11년 만에 책의 권모는 조국의 독자에게 되는것을, 나는 감개초기 생각한다. 이렇기 기록된 사실은, 즉 약자 11년 동안에 생긴 일들은, 인연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보아 대단한 보람이다. 이것을 잊을 것은, 즉 일로 미우고, 다만 자문 이시기에 조국의 독자에게 다음과 같이 심정에서 극대한 몇마디로써 자신을 대신하리라 한다. 우리 민족은 반드시 독립되리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유의 땅과 평화의 길이라든, 그와정을 성실성 있고 평화하게 하지 않고, 지금의 귀한 서양과 서로 할 때는, 군사정권을 일삼는다면, 통일은 우리 민족의 멸망방어 없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 인민들은 동양의 열등은 역사적인 필연성이다. 누가 이 사태를 영적화하고, 혼란 소멸하고, 비화한다며, 그것은 잘못이다. 나는 이런 사태를, 한듯이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거역해야 하고, 그것은, 우리 민족은, 대개 있고, 더 배우고, 더 지혜를 갖게 되리라 믿는다. 흐르는 현대사정 상으로, 감압반으로, 막아 왔던 어찌 그 자유를 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일은, 이 현상에 귀중한 의의가 지하는 소위 동맹일시엔, 양자간에는, 많은 감정의 정복, 조국주의 하나로, 그로써, 정권의 폭력이 생기고, 삶에서, 우리의, 영혼을, 마지하는 것이다.





2년 후인 1937년 다시 통영으로 돌아와 화양학원(지금의 화양초등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한글 수업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 조선어로 말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오페라의 문헌을 연구하고 작곡을 계속하며 첫 동요집 《목동의 노래》를 펴내었고, 1939년 다시 일본으로 가 이케노치 도모지로에게 대위법과 작곡을 배웠다. 광복은 지식인들에게 스러진 민족의 역량을 재집결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었다. 이때부터 통영은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룬다. 유지환·김춘수·김상옥·정윤주 등과 함께 결성한 통영문화협회는 한국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다. 작은 도시 통영의 문화운동이었지만 여기에 참여한 이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무렵 통영고교 등 통영의 거의 모든 학교의 교가를 작곡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음악활동은 더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1948년 통영여자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일하다가 부산사범학교로 옮겨 음악을 가르치며 작곡을 했는데, 이듬해 8월 가곡집 《달무리》를 부산에서 출판했다. 이 책에 실린 가곡 고풍의상(古風衣裳)은 시인 조지훈의 문장지 추천 작품으로, 60년대에 많이 불린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시는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시적 역량을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승무, 봉황수 등 초기시의 방향인 민속과 민족혼을 향한 시심을 잘 보여준다. 평소 이 부분에 대한 가열한 관심을 가진 작곡가 윤이상이 선택한 시라는 점에서 당시 음악적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다.

1956년 4월 《현악4중주 1번》과 《피아노 트리오》로 '제5회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다. 이 상은 작곡가에게 주어진 최초의 것이지만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계기로 삼았다. 당시 대한민국에서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20세기 작곡기법과 음악이론을 공부하기 위하여 유럽행을 결심한다. 처음 파리에서 만난 현대음악은 이질적이었다. 한국에서 배운 음악이론으로 방향을 설정하기엔 무리였다. 그의 첫 스승은 베에토편과 바그너를 분석하는 토니 오뱅이었다. 피에르 르벨에게선 폴 포세, 앙리 샬랑, 장 갈롱의 이론을 배웠다. 하지만 파리는 차가운 도시였고, 또 다른 무엇을 갈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1957년 베를린으로 갔다. 거기서 여러 스승을 만났다. 레인하르트 슈바르츠실링, 보리스 블라허, 요세프 루퍼 등등 일가를 이룬 음악인들이었다. 1959년 빌토벤에서 '피아노를 위한 다섯 작품'을, 다름슈타트에서 '일곱 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초연했다. 서양음악에 동양의 정서를 접목하는 실험을 계속했다. 음악의 본고장에서 시작한 이 실험은 차츰 음악계의 주목을 끌기 시작했고 조금씩 윤이상이란 이름을 기억하게 되었다.

1964년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동베를린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으로 윤이상의 음악을 개척해 나갔다. 1965년 초연한 불교 주제에 의한 오라토리오 《오 연꽃 속의 진주여》(1964)과 1966년 도나우에싱어 음악제에서 초연한 교향곡 《예악》은 그를 명실상부한 국제적 음악인으로 만들었다.

|| 글쓴이 이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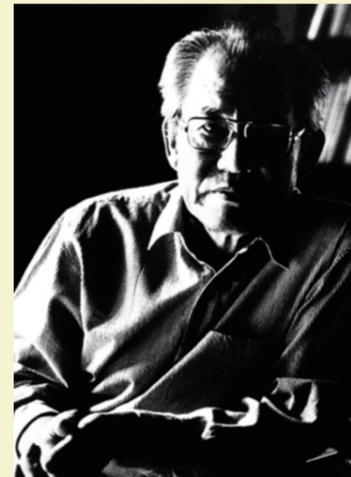
이달균 시인은 1987년 <지평>을 통해 문단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계간 <시와 생명> 편집인, <경남문학> 편집장 등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장롱의 말>, <북행열차를 타고>, <남해행> 등이 있고 중앙시조대상 신인상, 마산시 문화상, 경남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경남신문-이달균칼럼>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활발한 기고활동을 하고 있다.

경계위의 삶, 경계를 허물다.

호사다마(好事多魔)란 말이 있다. 거장이 된 윤이상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만다. 그의 생애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은 '동백림사건'에 연루된 것이다. 1963년 북한에 있는 오랜 친구 최상학을 만나러 북한에 갔다가 윤이상 음악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낸 김일성과도 친분을 쌓게 된다.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정권은 이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어 사형을 선고 받아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다. 1969년 감옥에서 오페라 '나비의 꿈'을 썼다. 이 작품은 1969년 2월 23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초연되었는데 31회의 커튼콜을 받는 등 큰 호평을 받았다. 옥 안에서도 작곡은 계속되었다. 한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주축이 된 200여명의 유럽 음악인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공동 탄원서를 내어 윤이상의 수감에 대해 항의했다. 1967년 12월 13일 1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69년 2월 25일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었다. 윤이상은 서독으로 추방되었으며 영영 조국에 돌아올 수 없었다. 한국 정부는 그의 음악마저 연주를 금했다. 1969년부터 1970년까지 하노버 음악대학에 교수로, 1977년부터 1987년까지 베를린 예술대학의 교수로 재직하였다. 독일에 정착한 그는 1972년 뮌헨올림픽 대회의 개막축하 작품으로 오페라 '심청'을 작곡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1985년 서독 뒤빙겐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1987년 독일의 바이체커 대통령으로부터 '대공로 훈장'을 수여 받았다.

윤이상, 음악으로 역사가 되다.

1994년 9월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부산·광주 등에서 윤이상 음악축제를 열었다. 윤이상은 참석하려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와 갈등을 겪고 결국 건강이 악화되어 입원하였고 1995



년 타계했다. 이 때 그의 소지품 가운데는 안숙선의 남도민요 음반이 있었다. 올해는 윤이상 서거 14주년이다. 2005년 10주기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베를린·평양·베이징을 거쳐 서울에 온 베를린 윤이상 앙상블의 공연 등 10주기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름 하여 '윤이상의 귀환'이었다.

그는 늘 경계 위에 서 있었다. 음악적으로는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의 경계 위에 서 있었고, 일본에서 공부하면서도 한국적인 것을 잃지 않으려 애썼으며, 대립된 이데올

로기로 인해 분단된 조국의 철조망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인간 윤이상이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진정 원한 것은 그 경계를 허물고 화해와 조화를 꿈꾸었던 것이다. 이제 그 꿈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가 구현하려 했던 음악은 벌써 경계를 풀었고, 늦었지만 조국도 경계 위의 지식인 윤이상을 팔 벌려 안았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경계도 언젠가는 허물어질 것이다. 외로운 길을 혼자 먼저 걸어간 위대한 작곡가 윤이상의 묘소는 베를린 외곽 가토우 지역묘지 특별묘역에 있다. 꽃은 열흘이요, 권세는 십년이지만 예술은 천년이라 했다.

윤이상은 갔지만 그가 음악으로 구현하려 했던 영혼과 정신은 영원하다. 현재 통영시는 윤이상 추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2년 3월,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초대 이사장 : 故 박성용 금호아시아나 그룹 명예회장)의 설립이 대표적이다. 통영국제음악제는 명실상부한 국제음악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현대음악, 고전 음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음악제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윤이상 기념관>이 들어설 도천테마공원(도천동 148번지 일대)을 조성 중이다. 통영시는 윤이상으로 또 하나의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Arts & Business



2009년 상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열려

행사는 먼저 신달자 시인의 '기업과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으로 막을 열었다. 특별강연에 이어 주요 내빈의 축사와 경남메세나협 의회의 사업 소개가 이어졌으며 뒤이어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의 결연식이 진행되었다. 결연식에 이어 기념촬영과 축하공연 그리고 만찬의 순서로 이날 결연식은 마무리되었다.

신달자 시인은 특별강연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예술인들이 기업인들의 진심어린 후원 때문에 힘을 내고 있다며,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침체기에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또 하나의 피인 문화 예술에 한 병의 링거를 주입하듯 우리 기업인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프랑스의 화가 로댕이 자주 말했었다는 '힘을 내라구(Bon Courage)'라는 구호를 제안했다. 이어 경남메세나협회의 문동성 회장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문화라는 미래사회의 핵심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미리 준비하는 현명함을 우리 경남의 기업인들은 잘 갖추고 있어 전년도 29팀의 결연에 비해 올해는 상반기에만 24개팀이 결연하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며 결연팀들에게 축하를 보냈다. 김태호 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안상근 정무부지사는 "해리포터의 7년간 판매액이 300조원이라고 한다. 미래의 사회는 드림소사이터티를 추구하며 이는 곧 문화예술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라며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한 윈-윈을 강조했다. 경남신문의 이순복 상임고문은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경남도정의 주요 사업의 하나인 메세나가 많은 문인과 예술가를 탄생시킨 우리 경남의 예술풍토와 맞아 떨어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경남의 기업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 특별하다"며 기업인들의 메세나활동을 격려하면서 "문화예술 단체는 불타는 열정과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기업들의 후원에 보답할 것이다"라고 격려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만남 희망의 약속

2009년 상반기 경남메세나협회의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6월 10일 오후 5시 창원호텔 별관 목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결연식에는 총 24개팀의 결연 기업과 단체가 참석했으며 경남메세나협회의 문동성 회장(경남은행장)을 비롯한 내외빈 등 총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결연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경남은행 / 경남오페라단, 고성오광대보존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관계형 금융'도 문화 예술 지원과 함께



올 해 창립 39주년을 맞이한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지역금융 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당초 설립취지에 맞춰 다양한 선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선보여 실질적인 금융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경남은행 사랑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재결연한 경남오페라단(단장 정찬희)과 고성오광대보존회(회장 이윤식)와 함께 더 긴밀한 상호 교류를 통하여 문화예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경남은행과 재결연한 경남오페라단은 1992년에 창단하여 베르디 오페라<라트라비아타>를 시작으로 <카르멘>, <리골렛토>, <세빌리아의 이발사>,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등에 이르기 까지 10여 편이 넘는 그랜드 오페라를 무대에 올려왔으며, 창단 10주년 기념으로 창작한 오페라 '논개'는 중앙무대에서도 찬사를 받았다. 앞으로도 경남은행의 지속적인 오페라 지원을 통해 오페라의 대중화와 수준 높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고성오광대보존회는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1974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미국과 유럽을 비롯 11개국 100여 차례의 해외공연을 통하여 한국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여 왔다. 고성오광대는 현존하는 영남형 탈춤 중 가장 원형에 가깝게 전승되고 있는 가면극으로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출연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수준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4개팀의 결연식과 축하행사에 뜨거운 박수를

이어 경남메세나협의회 손갑동 전무의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소개가 이어졌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사업, 회원사 협력사업, 문화나눔사업, 연구 및 홍보사업 등 그동안의 활발한 활동 내역과 2009년도의 계획이 발표되었고 기업인들과 예술단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업소개가 끝난 후 이날 행사의 메인 프로그램인 결연식이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시작되었다. 결연식은 행사장을 길게 가로 지르는 조인식 테이블에서 각 결연 기업과 단체들이 약정서에 교환 서명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24개 기업과 예술단체의 교환 서명 장면은 지금껏 보기 드문 장관이었고 모두들 서로의 활동에 대해 칭찬과 축하를 아끼지 않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종일관 진행되었다. 결연식 기념촬영에 이어 이번 결연식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된 '손양희 국악예술단'의 축하공연이 시작되었다. 가야금병창과 판소리 그리고 남도민요로 이어지는 흥겨운 국악의 가락에 장내는 축하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메세나 활성화를 기대하는 희망의 약속과 함께 막내려

본 행사후 이어진 만찬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기업과 단체들이 서로 축하하며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비교적 차분하고 절제된 분위기로 진행된 이번 결연식은 우리 경남의 기업인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공감하는 기분 좋은 자리가 되었고 향후 메세나 활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는 희망의 약속과 함께 막을 내렸다.

STX조선해양(주) / 경남팝스오케스트라, 진해시여성합창단, 진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

무림페이퍼(주) / 진주챔버오케스트라

금강중기 / 김해오광대보존회

대한민국 대표 조선해양기지에 피어오르는 문화예술의 향기



STX조선해양(주)(대표이사 김강수)는 지난 40여 년간 700여 척의 선박을 건조하며 대한민국 조선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내 대표 조선해양 기업으로서 LNG선, 초대형유조선(VLCC), 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건조에 특화된 설비 배치와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드릴십을 비롯한 DrillingRigs, FSU, LNG FPSO 등을 주력으로 Offshore 사업에 본격 진출하여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탑 조선해양 기지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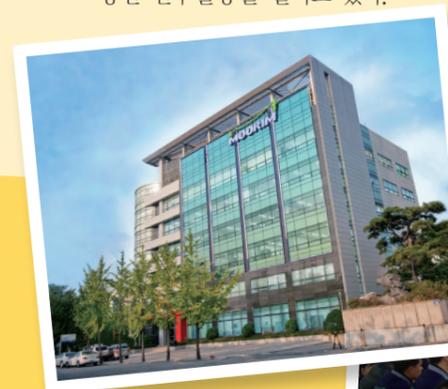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장학사업, 농촌 돕기, 환경보호, 스포츠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벚꽃예술제 및 진해예술제를 후원하고 그 밖에도 진해에서 열리는 각종 연극 및 음악회들을 후원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보다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결연한 경남팝스오케스트라(대표 이종일), 진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박정훈) 그리고 진해여성합창단(단장 우영옥)과 함께 더욱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기 위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STX조선해양(주)와 결연한 경남팝스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영화음악, 재즈,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지역민의 정서함양과 수준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경남의 대표적 음악 단체이다. 진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진해 균형제를 비롯한 지역문화행사 및 소외지역을 찾아 펼치는 사랑의 음악회 등 진해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진해시여성합창단은 50여명의 진해지역 여성들의 음악사랑으로 창단된 단체로 진해시 여성문화활동의 중심이 되어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천재들의 창작물을 담아낼 최고의 종이 생산을 위해

1956년부터 국내 제지산업을 이끌어 온 특수지 전문기업 무림제지를 모기업으로 하여 1975년 설립된 무림페이퍼는 진주공장의 캘린더와 브로셔, 제품 카다로그 등 고급 인쇄물에 쓰이는 아트지 생산량이 연산 55만 톤으로 단일공장 생산능력으로는 부동의 국내 1위 기업이다. 전세계 선진 제지업체들과 비교해 6년 연속 생산성 세계 1위를 달성할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진주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메세나활동과, 무림사랑나눔미 활동, 진주 상평동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 월급자투리 금액 모으기를 통한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등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무림페이퍼와 재결연한 진주챔버오케스트라(단장 심재화)는 1996년 창단 후 진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수준 높은 연주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은 물론 공연문화의 위상 정립과 음악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클래식 인구의 저변확대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 중이다. 매년 2~3회의 정기연주회, 인근지역 및 학교의 초청 및 찾아가는 음악회, 테마별 기획음악회, 청소년과 전문연주자를 위한 협주곡의 밤,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전통가곡 및 아리아의 밤 등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해 지역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 설 것



금강중기(대표 손병철)는 1989년도에 설립된 김해 상동 소재 중소기업으로 김해 인근 각종 건설공사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중장비업과 함께 건설업종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를 생산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금강중기는 오래 전부터 지역 내에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장학사업, 경로잔치, 지역봉사활동 등을 실천해 오고 있다.

금강중기와 결연한 김해오광대보존회(회장 이명식)는 남부형 민속 가면극을 계승하는 단체로, 1890년대에 김해군 가락면 죽림리에서 전승되어 오다가 1937년 일제 강점시 문화 말살 정책으로 중단되었던 민속 가면극을 1984년 김해오광대보존회 발족과 함께 재연을 시작하게 되었다. 철저한 고증과 문하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탈, 의상, 도구, 동작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김해문화원으로 들여와 김해군 이북면에서 첫 연회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민속 가면극의 계승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 주고 싶어

동은화학(대표 박창원)은 김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우수한 인력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고무용 약품 제조 분야에서 동종 업계 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이다. 내실과 정도 경영을 표방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지역 내 소재한 선무용단과의 결연을 통해 메세나활동을 시작하여 금년 재결연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지역 문화 예술 지원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동은화학과 결연한 선무용단(단장 김희진)은 무용학과 전공자들을 주축으로 창단되어 전통춤의 계승 발전 및 이를 창작예술로 승화시키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예술단체이다. 지역 내 각종 지역 문화 축제 참가, 복지시설 자선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경남무용제 경연에 김해 지역 대표로 참가하였다.



발레의 정교한 동작과 치과 치료는 같은 차원



문운수치과의원(원장 문운수)은 1990년 마산 구암동에서 개원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20년 가까이 최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는 중견 치과병원으로 경남발레단의 지원을 통해 매년 문화예술 지원을 실천해 오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 매칭펀드 결연을 통해 결연 단체인 경남발레단과의 활발한 교류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경남발레단(대표 이동근)은 1997년 5월에 경남 최초로 창단된 전문 발레단이다.

현재 20명의 단원이 클래식 발레와 창작 발레를 넘나들며 활발한 창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경남오페라단과 창신오페라단의 정기 및 갈라 공연 협연, 경남한마당 축제, 진주관악단 정기공연 협연참가 등을 통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역을 넘어 아시아 미술 지원에도 관심



미르치과의원(원장 박욱, 정미혜)은 1991년 개원 이래 창원에서 20년 가까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현재는 창원 상남동에 롯데메디컬센터를 건립하여 병원전용건물로 운영하며 전국 네트워크병원인 미르치과병원으로 운영 시스템을 변경하여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 각종 행사 등에 다양한 형태로 후원 및 협찬 등을 해 왔으며 2009년 아시아미술제에는 민간으로는 유일하게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미르치과의원과 결연한 창원미술협회(대표 김학일)는 1986년 5월 창립한 창원의 대표 미술단체로, 창원 향토미술 문화 발전을 위해 창작활동과 함께 출판 및 계몽에 관한 사업, 국내외의 미술 문화 교류에 관한 사업, 아시아미술제와 성산미술대전 및 각종 실기대회에 관한 사업 및 기타 회원의 권익과 복지사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다. 현재 한국화, 서양화, 조각, 디자인, 서예, 공예 등 각 분야에 2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환경 보존과 문화 보존은 우리 후손에 대한 약속

북성산업(주)(대표이사 박환병)는 1996년 4월 설립하여 우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및 관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상 하수도 공사와 위생관리 용역, 시설경비 및 주택관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지난 13년간 해당 분야 전문기업으로서 기술력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환경 관련 사업을 성장시켜 오고 있으며 결연단체인 풍류춤연구소와는 수 년 전부터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성산업(주)와 재결연한 풍류춤연구소(대표 강동옥)는 전통춤 계승 및 창작 활동으로 민족춤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립되었으며, 지역 내에서 공연 및 예술 교육 활동 위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북성산업(주)와는 경남메세나협회의 회를 통해 매칭펀드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풍류춤연구소의 강동옥 대표는 민예총 경남지회 사무처장 및 진주지부장직을 수행중이며 진주오광대 예능 보유 후보자이다.



Arts & Business

(주)삼전건설 / 연음예술단

(주)세진경남지점 / 대한전통예술보존회경남지회

속편한내과 / 마산국악관현악단

원광건설(주) / 경남사진학술연구원

**탄탄한 바탕은
건축과 예술에
똑같이 중요**

(주) 삼전건설(대표이사 정연문)은 1984년 창원에서 개인기업으로 설립된 후 2002년 법인으로 전환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견 건설회사이다. 현재 본사는 창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영진 및 관리부서는 서울지사서 실무를 처리함으로써 수준 높은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급공사 위주의 시공과 건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하며 그 동안 계획해 왔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연음예술단과의 결연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연음예술단(단장 천승호)은 우리 민속음악의 악, 가, 무를 연주하는 단체로 김해시를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의 각종 문화행사 참여 및 해외문화 교류 등의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김해지역 소재 민속 단체들과 함께 우리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지역
전통예술의
가치 재해석**



(주) 세진경남지점(대표이사 김장원)은 석유류 도.소매, 골재운송,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주)세진(본사 소재지:전북 무주)의 석유류 도.소매 사업부문의 별도 법인이다. 함안 산인 신설 국도변에 위치한 주유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며 석유류 저장시설을 이용한 도매업도 영위하고 있다.

(주)세진경남지점과 결연한 대한전통예술보존회경남지회(지회장 손양희)는 우리 전통음악인 국악의 계승발전과 전문 국악인의 양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해 1996년에 창단한 단체로 유럽, 남미, 동남아 등 해외 순회공연을 비롯하여 국내·외 약 1,000여 회 이상의 공연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1996년 창단 시부터 '창원 전국국악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손양희 지회장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제 제9호 판소리 "수궁가" 전수 조교로, 손양희 국악예술단과 창원 어린이국악단을 운영하며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국악의
깊은 맛은
우리 민족에만
주어진 혜택**



속 편한내과(원장 조중현)는 마산 합성동에 소재한 소화기 계통의 내시경 전문병원으로 대학병원 수준의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 검사 및 기업체의 건강 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다. 수 년 전부터 마산국악관현악단의 공연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역 문화 예술 지원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매년 환자 및 가족, 지인들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음악의 잔잔한 선율로 병원 분위기를 평온하게 하는 등 생활 속에 문화예술을 접목시키며 메세나를 실천하고 있다.

마산국악관현악단(단장 김연옥)은 1989년에 창단된 마산의 대표적인 국악관현악단이다. 정회원 80명을 비롯해 청소년 단원 104명 등 약 200여 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복지시설 순회공연, 정기 공연, 창작 기획 공연 등 국악을 통한 마산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 컷의 사진을
담아낼 때의
정성과 집중을 배워**



원 광건설(주)(대표이사 조성제)는 창원 상남동에 소재한 종합건설업체로 관급공사 위주의 운영으로 부채비율 10%를 하회하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 중견 건설회사다. 조성제 대표이사는 경영학박사로, 환경 사진작가로서도 뛰어난 창작활동을 보이는 등 문화 예술분야에 조예가 깊어 메세나 협의회 이사로 활동 중이며, 2008년 경남메세나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수 년 전부터 경남오페라단 및 합포문화동인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경남사진학술연구원(원장 김관수)은 2001년 설립되어 현재 회원 100여명이 대다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사진학을 전공하였거나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다양한 연령대의 경남 출신 현직 사진작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창립시부터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한 사진기획전을 개최하여 매년 참여작가 30여명이상, 출품 작품 수 180여 점에 이르는 대형전시회를 개최해 왔으며, 초대개인전과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 경남지역의 사진문화 향상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일림나노텍(주) / 마산관악합주단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 / 대안공간마루

(의)청아의료재단 / 경남프리모양상블

추고쿠삼화페인트(주) / 김해농악보존회

음율과 사람은 조화를 이루기 위해 존재

일림나노텍(주)(회장 박효찬)는 소형정밀기계분야 및 부품 사업 분야에 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차세대 정밀기계산업 분야에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1985년 금속절삭기공기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2년 1월 법인 전환하여 냉각시스템, CNC선반, LASER C/M, 설비자동화 시스템 등의 제반 시설을 갖추고 공작기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여 년간 기계부품 및 완성품 부문에 전념하여 현재 중국 산동성에 현지법인 공장 2개를 가동 중이다.

일림나노텍(주)와 결연한 마산관악합주단(단장 김정호)은 1980년 故 오호걸 해군 군악대장과 경남지역 관악기 연주자들에 의해 창단되어 경남지역의 대표적 관악단으로 발전해 왔다. 창단 이후 현재까지 47회의 정기연주회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 합포만음악제, 돛섬야외음악회, 국제관악제 등 각종 행사 및 초청연주회에 100여 회 이상 출연하며 지역 관악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다.

환자의 안정된 정서는 치료의 시작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대표원장 정태기)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6명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명의 의료진 및 34병상의 입원실과 수술실을 갖추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 수술 및 재활치료까지 원스톱 진료를 표방하는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이다. 오래 전부터 교류 협력 관계를 맺어온 대안공간마루를 통해 갤러리를 설치해 놓은 9층과 입원실이 마련돼 있는 8층의 벽면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여 30여 점의 그림들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2008년도부터는 메세나 결연을 통해 더욱 활발한 문화 예술 지원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08년 경남메세나대회에서 메세나상(창의상)을 수상하였다.

대안공간 마루(대표 최경희)는 1994년 창립되어 미술인들의 발언의 장과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 제공 및 문화향유권 신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단체이다. 해마다 공모를 통해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역민들에 대한 미술작품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문화(미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병원에 대한 친밀감을 합창을 통해 만들어 내

(의)청아의료재단(이사장 최재영)은 마산 내서읍에 소재한 비영리의료법인으로서 1983년 동서병원 설립에 이어 내서 지역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해 1997년 청아병원을 설립함으로써 현재 2개의 병원을 운영중인 의료재단이다. 지역 보건 및 지역민 건강증진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지역 문화 예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결연 단체인 경남프리모양상블과는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경남프리모양상블(대표 조미숙)은 1998년 창단된 남성 전문 중창단으로서 다양하고 참신한 공연과 악곡 구성, 색다른 감동으로 지역 음악 애호가 및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단체이다. 단원 전원이 성악을 전공하여 정기공연, 초청공연, 병원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높은 음악성으로 완성해 오고 있다.

지역 문화 예술 보존은 국경을 초월해 필요한 것



추고쿠삼화페인트(주)(대표이사 시마다 카츠키)는 김해에 소재한 외국계 회사로 일본 추고쿠마린페인트사와 국내 유수의 전문 도료 제조회사인 삼화페인트공업(주)의 합자회사이다. 1988년 설립되어 한국 및 주변국을 대상으로 선박용 도료 및 공업용 도료를 제조 판매 하는 도료 전문회사로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일본의 추고쿠마린페인트사의 세계적인 마케팅 및 서비스망을 활용한 적극적 경영을 펼치고 있는 중견 기업이다.

김해농악보존회(회장 김복이)는 김해 지역에 전래되어 오는 상동농악, 진례농악, 칠산농악, 유하농악, 활천농악 등을 발굴하여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립된 예술단체이다. 우리 농악의 우수성을 통해 지역간 문화교류 및 신세대들에 대한 전통문화 전수 교육, 문화 탐방 기회 제공, 문화예술 소외 지역인 양로원, 교도소, 노인병원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미술 작품과 물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



(주) 포스텍 (대표이사 최기석)은 해상, 항공 화물운송을 기반으로 통관, 창고업 등 물류 전 영역에 걸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STX계열사 중 하나이다. 세계화 시대의 기업환경 변화와 국제 물류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미주나 유럽, 아시아등 세계 주요 지역에 20여 개의 해외법인과 지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고객의 국제물류를 책임지는 글로벌 일등 물류기업의 비전 실현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 최기석 대표이사는 수필가로서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으며, 이와 함께 지역 문화 예술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진해미술협회와의 매칭펀드 결연에 이어 2009년 재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진해미술협회(회장 김다순)는 1963년 창립 이후 전국 학생 미술실기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봄,가을 회원 정기전을 개최하고 2004년 부터 한일 교류전 개최 등 문화 예술을 통한 지역 홍보 등에 선도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오락기에 빠앗긴 민속놀이의 즐거움을 찾아낼 것

흥기종합건설(주)(대표이사 황동열)는 2003년 설립된 김해지역 건설회사로서 문화재 건설 및 보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김해지역의 문화재 건설 및 관리, 보수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황동열 대표이사는 지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을 해 왔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김해민속예술보존회와의 결연을 통해 향후 지속적인 메세나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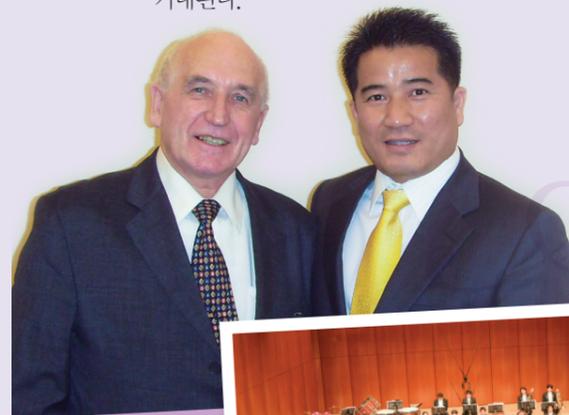
김해민속예술보존회(회장 박서현)는 김해 지역내에 전래되어 오는 민속놀이를 발굴, 계승 발전시켜 올바른 민속문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지역 전통문화의 각 장르별 단위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 및 보전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09년 거제에서 개최되는 경남민속예술경연대회에 "석전놀이"를 소재로 참가한다.



신기술의 개발은 예술적 창작과 같은 맥락

(주) 화성계전(대표이사 김원철)은 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엘리베이터 설치자재및 전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한 재무구조의 중견기업이다. 엘리베이터 와이어로프, 체인, 형광패션체인, 안전 가드레일 등을 LS산전, 고려제강, 독일 Intercontec사 등에 판매하고 있는 화성계전은 지난해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중 15~20% 정도가 수출이다.

(주)화성계전과 결연한 마산청소년관현악단(단장 김호준)은 1990년 5월 경남 최초의 청소년관현악단으로 창단되어 그동안 38회의 정기연주회와 협주곡의 밤, 송년음악회 해설 음악회 및 순회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동유럽 순회공연, 일본 후쿠오카 초청공연 및 중국청소년교향악단 초청 통일기원음악회를 여는 등 국내외적으로 왕성한 공연활동을 통해 우리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홍보하는 청소년 연주단체로 성장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신창기계와의 교류협력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금년에는 화성계전(주)와 결연을 통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이 문화 수준 향상의 기초



PS 엔터테인먼트(대표 최민선)는 2005년 설립된 전문 공연기획사로 뮤지컬, 연극, 클래식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분야의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2008년도 부터 대형 가수 콘서트를 비롯한 개그 콘서트 기획 등 다년간의 공연 기획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인프라 및 제작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더 큰 성장을 위해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고 현재의 김해 본사는 향후 부산지사로 운영할 계획이다.

극단 이루마(단장 이정유)는 2004년 김해에서 설립된 연극 단체로서 연극, 뮤지컬, 무용, 발레,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킨 무대 공연예술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연극단체이다. 김해에 자체 소극장을 운영하면서 연극을 통해 지역민에게 문화예술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 경남남도 연극제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

“요즘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힘듭니다. 지역 전통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주변의 관심과 후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봅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요즘 우리 기업들이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이러한 후원을 실천하려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제가 후원을 시작하던 시기와는 많이 달라졌고 문화예술에 대한 마인드의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특유의 힘있는 어투로 인터뷰를 시작한 경한코리아(주) 이상연 회장의 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오랜 사랑과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엿보인다. 굳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내 빠져드는 생각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소기업,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 시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형태가 과거 기업의 이윤을 재정적 후원이라는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고객과의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의 축적이라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기업들은 고객들에게 감성과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통한 마케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문화마케팅이나 메세나 활동이 이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 특히 이상연 회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문화예술 후원 활동이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뜻이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연 회장이 84년 설립한 경한코리아(주)는 창원 팔용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이다. 특히 자동차 변속기 핵심부품의 기술력과 생산성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고주파 열처리기나 자동연삭기 등 첨단 설비를 갖추고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가 이루어져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돈된 작업 현장을 통해 강소기업의 면모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강한 중소기업의 모습에는 설비에서만 아니라 공단 문화제 창설이나 솟대패사물놀이예술단에 대한 후원 그리고 매년 이루어지는 고향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잔치 등 아직 문화 지원의 개념이 활발히 논의되지 않던 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상연 회장의 다양한 문화 활동이 뒷받침 되어 있다.

근로자에 대한 사랑이 빚어낸 문화 휴식처

“당시 통일산업에 근무하던 김승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음악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5인조 그룹사운드를 만들어 동료들과 함께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하면서 공단 내 다른 동아리들과 함께 공단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예술제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당시만 해도 공장근로자들은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었고 공단은 문화예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도 한 때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땀 흘리던 근로자였기에 그런 제안이 가슴에 와 닿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회사를 그만 두고 사업을 시작하기

3년째 되던 1987년의 일이었다. 함께 땀 흘리던 근로자들에게 대한 특유의 깊은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대목이다. 그는 곧바로 대기업 담당자들을 찾아가 후원을 부탁하고 공단 문화제의 필요성과 후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외로 반응은 차가웠다. 의도는 좋지만 후원을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결국 아무런 후원도 얻어낼 수 없었다. 고심 끝에 그는 이제 갓 시작한 회사인 경한코리아(주)의 사장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후원을 하기로 결심하고 제1회 공단문화제를 우여곡절 끝에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것을 계기로 솟대패사물놀이예술단과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공단문화제는 공단예술제등의 이름으로 해를 거듭하며 제9회까지 이어져 공단 근로자들의 문화적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러한 그의 활동에 창원상공회의소가 문화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공회의소 문화상을 제정하고 후원하기 시작했으며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의 불모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성과였다.

힘들 때 격려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이 곧 메세나

그의 따뜻한 마음은 문화예술 후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는 해마다 5월이 되면 고향 예전을 찾아가 경로잔치를 연다. 호명면 금능1리 주민 350여명은 그날 하루만큼은 소와 돼지를 잡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마음껏 흥겨운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솟대패사물놀이예술단의 흥겨운 사물놀이와 판소리가 빠질 수 없다. 기업 활동을 하며 힘들 때 마다 격려와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고향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는 그의 말에서 또 한 번 그의 사람됨을 가늠할 수 있었다.

2009년에 그는 경남메세나협의회 부회장에 취임했다. 20여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해온 일이라 굳이 직책을 맡고 싶지 않았지만 경남메세나협의회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함께 좋은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 솟대패사물놀이예술단과의 결연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평소 유한양행 유일한 회장의 실천하는 모습을 잊지 않고 있는 그의igi에 의해 경남메세나에서의 그의 활동에 기대가 크다.



산골농장 장미 축제

지리산 해발 250미터를 수놓은 장미와
오케스트라 선율의 아름다운 향연,



산골농장 장미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한 해발 250미터의 지리산 자락에는 이른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산, 함양, 마산 등 각지에서 찾아와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장미와 분재 그리고 조각공원 등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었다. 10만여 평의 넓은 대지에 위치한 산골농장과 장미공원의 잘 정돈된 모습 속에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켜 줄 지리산팍스오케스트라의 흥겨운 연주곡이 무공해 청정 공기를 타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친환경에 대한 노력의 결실, 장미축제

천혜의 자연환경에 위치한 산골농장은 2동의 육주를 포함하여 산란동 6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5만수의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싹멧 케이지와 미국 초아타임의 첨단 시설을 갖춘 우리나라 최고의 채란계 생산지다. 올 4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양계농가 국내 최초의 '환경친화 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고, 전국 이마트 매장과 부산 신세계백화점 친환경코너에 자연주의 마크를 달고 무항생제 친환경 달걀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 외국을 다니면서 세계 농업은 친환경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양계업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장은 사육시설이 전부 자동이고, 콜드체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위생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지만 가축을 기르는

농장이라서 계분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분 냄새가 나는 농장을 향기가 나는 농장으로 바꿀 수 없을까 고민하다 10여 년 전부터 농장 주변에 장미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를 종류별로 심다 보니 농장의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풍광을 고객들에게도 보여주는 생각에 2001년부터 장미축제를 시작한 것이 벌써 8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은 일석이조의 효과

산골농장의 이상호 대표는 작년부터는 경남메세나협회의 지원으로 축제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바로 경남메세나협회가 기업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 시작한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 덕분에 지리산팍스오케스트라가 이곳 산골농장으로 직접 찾아와 연주를 해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리산팍스오케스트라의 김성식 단장은 "오지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오케스트라 공연을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산골농장은 저희들의 연주를 들어서 좋고 저희는 연주할 기회를 얻어서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라며 연주의 소감을 밝혔다.

매년 5월 중순이면 전 세계 100여종 4만여 그루의 장미와 더불어 자연속에서 울려 퍼지는 지리산팍스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를 함께할 수 있는 산골농장의 장미축제가 앞으로 지역축제를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프로 못지 않은 순수 아마추어들의 합창단,

월드콰이어 챔피언십(WCC)도 두렵지 않아요

경남메세나협회의 지원으로 기업들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경남은행 합창단의 활약상을 들어 본다

경남메세나협회의 2009년 신규 사업인 '기업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그 중 하나인 기업 내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은 직원들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 기회를 증대시키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경남도내 기업들이 예술동아리를 결성하거나 활성화시키고자 할 때 경남메세나협회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들어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에 이미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경남은행 합창단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올해 2월에 문화예술 지원과 경남은행의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결성된 경남은행 합창단은 일반 행원에서부터 지점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으로 이루어진 음악을 좋아하는 순수 아마추어들의 모임이다. 이러한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차례의 공연과 수상경력까지 가지고 있다.

36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경남은행 합창단 단원들은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지만 평소 음악을 좋아하고 문화예술 행사에 적극적인 직원들로 한마음이 되어 모인 이유로 더 나은 화음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바쁜 업무에도 매주 수요일이면 빠짐없이 연습에 참여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거기에 경남메세나협회가 지원하는 '예술 강사의 지도가 더해진 결과 지난 창립 39주년 행사에서는 동료 직원들 앞에서 멋진 축하공연을 선보였고,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교식 행사로 열린 'KBS 열린음악회' 사전행사에서는 화려한 무대매너와 열창으로 6,000여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최근에는 우리금융그룹의 관계사 합창단들이 모여 경합한 그룹합창대회에서 영광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올해 7월 7일부터 열흘간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에서는 합창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월드콰이어챔피언십(WCC)'이 열리게 된다. 이 대회에는 세계 각국 200여개의 합창단이 참여하는데 경남은행 합창단도 이 중 한 팀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전 세계 아마추어 합창단과 세계대회 입상 경력을 가진 우수 합창단들이 총집결하는 이번 대회에서 경남은행 합창단이 다시 한 번 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청소년 문화체험 마당
'뒤집기 흥부전'

공연을 통해 얻는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체험

지난 4월 9일 산청 문화예술회관에는 초등학생 300여 명의 왁자지껄 즐거운 웃음소리가 회관을 떠나보낼 듯 가득했다. 무슨 일로 아이들이 그렇게 즐거워했을까? 바로 극단 미소의 마당놀이 '뒤집기 흥부전' 때문이다. 경남메세나협회의 소외계층 문화나눔 사업의 하나인 '찾아가는 메세나'가 이번에는 경남은행의 '꿈꾸는 금융교실'과 함께 산청의 아이들에게 공부와 놀이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2009년을 맞아 기획된 이번 '찾아가는 메세나' 사업은 우선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20개 시·군 청소년들에게 가족 마당극 '뒤집기 흥부전'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산청군 공연을 비롯해 의령(4월 18일), 합천(5월 9일) 등 올해 말까지 총 20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뒤집기 흥부전은 고전인 '흥부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각색하여 착한 흥부와 악한 놀부의 개념을 뒤집어 놓은 작품이다. 흥부는 게으르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기회주의자로 나온다. 반대로 놀부는 아주 근면 성실하게 부모가 물려준 논밭을 밭천 삼아 착실히 재산을 키워 나간다.

"배우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신기했어요"

극단 미소의 천영훈 대표는 "주제에 얽매이기보다 열린 사고가 주는 웃음과 재미를 느끼며 마당극을 관람하는 것이 포인트이며, 배우와 관객이 함께 참여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나눌 수 있는 흥겨운 놀이판이다."며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이 주는 즐거움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현상을 보는 눈을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청초등학교 5학년 2반 조혜성 어린이는 "제가 배우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어요.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어요. 처음엔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연극을 보고 나니까 놀부처럼 살고 싶어졌어요."하며 즐거워했다.

어린이들에게 공연을 통해 배우들과 하나가 되어 '참여하는 재미'를 느끼게 해준 이번 공연은 단순히 재미에 그치지 않고 흑백논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현상과 경제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신선한 기획의도가 엿보인 공연이었다.



'신호등 장애인 치료 교육센터' 어린이들의
즐거운 국악 체험기

흥겨운 국악 장단에

어깨춤이 저절로 덩실 덩실

"발표회에서 멋진 연주 보여주세요"

지난 5월 2일 창원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는 손양희 국악예술단과 창원어린이국악단이 주관하고 창원시와 KBS가 후원한 '창원어린이 국악단 정기공연'이 열렸다. 21세기 문화강국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우리 국악의 우수성을 전수하고자 어린이 국악단을 창단하고 국악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창원어린이 국악단은 올해로 3회째 정기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교 2학년 부터 중학생까지 국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로 구성된 창원어린이국악단은 그 동안 여러 번의 크고 작은 공연에서 연주했던 경력에 걸맞게 사물놀이와 판소리, 남도민요, 가야금 병창 그리고 창작 무용에 이르기까지 열정적이고 수준 높은 국악의 향연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에는 경남메세나협회의 소외계층 문화예술지원 사업인 '즐거운 나눔티켓'의 일환으로 '신호등 장애인 치료 교육센터'의 장애 어린이 100여명이 초청되어 흥겨운 국악의 한마당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에게 국악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장르이지만 '신호등 장애인 치료 교육센터' 아이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분위기였다 이미 몇 해 전부터 센터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국악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주가 시작되자 익숙한 국악 장단이 흘러 나왔고 아이들은 이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장단에 저절로 흥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이렇게 재미있어 할 줄은 미처 몰랐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인솔해온 '신호등 장애인 치료교육센터' 박영희 선생님도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흡족해 보였다. 공연을 관람한 김송희(14세) 학생은 "처음엔 국악이 낯설고 어색했는데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재미가 느껴졌어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또래 친구들이 공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저도 열심히 연습해서 연말에 우리 센터에서 하는 발표회에서 꼭 멋진 연주를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자신감 넘치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지체 장애로 비록 손발의 움직임은 자연스럽지 못했지만 관객들 중 그 누구보다 즐겁고 생기 넘치는 치료교육센터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주변 사람들도 모두들 흐뭇해 했다.





경남연극협회 박승규회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람사르문화관은 주남저수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었다. 눈이 부실정도로 맑은 햇살과 살며시 피부를 스치는 상쾌한 바람, 그리고 호젓함이 느껴지는 저수지의 물이 그와의 만남을 환영하고 있었다. 잔잔한 저수지의 물을 뒤로 하고 서있는 그의 모습에서 얼마 전 공연되었던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 '갈매기'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일까? 러시아의 국보급 연출가 카마 긴카스가 연출한 가장 체호프 다운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갈매기'. 그 연극의 배경이 되는 소린 저택 앞 호수를 재현하기 위해 무대를 방수 처리한 뒤 20톤의 물을 채웠던 그 무대와 배우가 주남저수지가 펼쳐주는 장관 앞에서 오히려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호숫가 주변을 서성거리는 갈매기 처럼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며 자신의 세계 속에 고립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은 우리가 왜 연극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가를 적절히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인생이 곧 퍼포먼스이고 연극

“인생 자체가 퍼포먼스이고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맡은 배역과 역할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성장하듯이 연극도 깊이 빠져들수록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연극배우 출신답게 멋진 울림의 목소리로 입을 연 그에게서 소탈하고 호방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느낌을 바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수록 회장이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이지 않고 어디서나 소통을 잘 해낼 인물이라는 인상을 어렵지 않게 갖게 되었다.

“작년은 한국 연극이 100주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1908년 11월 15일 이인직이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무대에 올린 것으로 서양식 연극이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되었죠. 경남연극협회는 100년의 한국연극사와 그 태동을 같이합니다. 오랜 역사와 그 동안 경남 연극인들이 뿌리내린 연극에 대한 열정이 경남을 전국에서 연극 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경남연극제, 마산국제연극제, 거제전국연극제, 통영연극예술축제 등 각 지역마다의 특색 있는 연극축제들이 있고 시·군마다 대극장과 소극장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활발한 창작활동들이 예술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경남이 바로 연극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끌고 있는 경남연극협회는 11개 지부, 14개 극단, 4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경남을 대표하는 연극협회다. 경남연극협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남연극제는 한 해 동안 제일 먼저 진행되는 행사로 매년

3월 중순에 보름간 열려 15개 이상의 극단이 공연을 선보여 왔으며 올해로 27회째를 맞고 있다. 경남예술극단의 경남연극합동공연은 10회째 순회공연을 진행 중이다. 그 밖에도 세미나, 배우 워크샵, 경남연극지 발행, 전국향토연극제, 경남청소년연극제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민간극단의 활성화,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

“민간 극단 활성화가 문제입니다. 10여개 정도의 민간 극단들이 소극장을 갖고 있는데 이곳은 창작의 산실이고 공연장 구실도 합니다. 최근 마산창동예술극장이 개관되기는 했지만 더 많은 극장이 생겨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메세나활동에 참여하는 극단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연간 계획조차 못 세우던 극단들이 이제는 경남메세나협의회와 기업의 지원을 통해 한 해의 공연 계획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과 예술이 만나는 건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들은 무엇을 해야 할 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 더 많은 홍보와 상생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메세나에 대해 잘 모르는 연극인들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및 설명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1983년 고교 졸업 후 은행을 다니다가 연극에 입문한 통영 '극단 벼수골' 배우 출신 박승규회장의 연극인들에 대한 애정은 대단하다. 부산예술대학 겸임교수이면서 지금도 배우 활동을 하는 그는 연극인 출신으로는 최초의 경남연극협회 회장이다. 그런 그의 배경이 협회와 극단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경남 통영시의 유일한 연극단인 '극단 벼수골'은 문화접촉의 기회가 거의 없는 섬마을 주민들에게 연극 감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랑도를 비롯한 통영시에 있는 10개의 크고 작은 섬 지역을 돌며 '사이버 춘향전'이란 제목의 연극작품을 공연한다. 배를 빌려 배우와 스태프들이 무대 세트까지 모두 싣고 섬을 돌며 공연한다. 그는 이런 공연이 연극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슴 뿌듯한 공연이라고 한다.

문화예술의 자존감 살리는 차원의 지원 필요

경남메세나협의회 문화예술지원 활동이 그에게 주는 연극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그 무엇보다 크다. “이전에는 협찬을 받으려고 팸플릿을 들고 직접 기업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이제는 경남메세나협의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과 공연계획을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문화예술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 소통 영역이 부족합니다. 쌍방이 다 그렇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지원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예술을 단순히 산업화, 콘텐츠화 시키려는 데 있어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자존감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문화예술이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업이 알고 예술단체와 서로 힘을 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소신을 밝히는 가운데에도 다음 공연을 준비해야 하는 설레임을 간직한 그의 눈빛에서 우리 경남지역에서도 조만간 세계적인 작가와 작품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가져 본다.



‘연극의 보고’ 경남에서
세계적인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르네상스 창조경영

최선미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연세대 영문학과를 나와 미국 코넬대에서 호텔경영학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코넬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3년간 강의했다. 2005년 귀국해 현재 연세대에서 서비스 오퍼레이션 분야를 가르친다. 최근 기독교, 힌두교, 르네상스 미술 등에 해박한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김상근 부교수와 공동집필한 <르네상스 창조경영>을 펴냈다.



브랑카치 예배당의 마사초 프레스코화

소년 미켈란젤로는 이 곳에서 르네상스 미술의 핵심을 발견하고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예술의 본질임을 깨닫는다.

창조경영이 대세다. 아니, 창조경영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절대 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세계 일류 대기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이젠 한계에 달했다. 소비자의 기대를 넘어서는, 더 나아가 소비자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창조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글로벌 경쟁 시대를 헤쳐 가야 한다. 경제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요즘, 창조경영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진다. 창조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창조성(Creativity)을 경영에 적용하기 위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온다.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피카소가 인기다. 그들의 천재성을 응용하려니 심리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창조경영 논의는 심리학과 경영학이 만나는 곳에서 활발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에서 나란히 부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선미 교수(경영학)와 김상근 교수(신학)가 출간한 <르네상스 창조경영>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 책은 인류 역사상 어느 시기에 그리고 어느 곳에서 인류가 가장 창조적이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해, 과연 그 창조성의 시대로부터 21세기의 경영자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탐구의 결과를 보여준다. 저자들은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지속된 르네상스 시대를 주목하고 있다.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들이 4-5년을 단위로 줄줄이 태어나서 문학과 예술과 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했던 이 시기에서 창조적 사고와 결과물의 원형을 발견하고, 이를 경영에 응용하려는 학문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르네상스 운동은 이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던 수많은 천재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 마키아벨리가 문학에서, 치마부에, 지오토, 마사초, 도나텔로, 브루넬레스키, 기롤란다요, 보티첼리, 다 빈치, 미켈란젤로가 조형 예술에서 르네상스의 황금기를 이루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천재 예술가들이었다. <르네상스 창조경영>은 이들 천재들의 작품 속에 녹아 있는 혹은 그 작품의 창조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속에 숨어 있는 창조성의 시원을 추적하고, 이를 경영에 적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물론 창조성은 시스템화가 불가능하다. 창조적 영감을 계량화하려는 순간 창조성의 가능성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따라서 <르네상스 창조경영>은 시스템화가 불가능한 창조경영의 가능성을 “예술적 시스템화”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다. 저자들은 르네상스 시대의 창조성으로부터 얻은 아래 10가지의 창조적 영감을 오늘의 경영에 적용시킨다.

1.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라

13살 소년 미켈란젤로는 마사초라는 선배 화가가 그린 브랑카치 채플의 작품 속에서 르네상스 미학의 정신을 간파한다. 그 그림은 성 베드로가 추운 겨울에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다. 마사초는 무엄하게도 성 베드로(초대 교황)가 베푸는 세례식에서 추위에 몸을 떨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대담하게 그렸다. 인간의 본성을 숨김없이 드러낸 마사초의 작품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르네상스 미학의 진수를 발견하게 된다. 창조적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서 출발한다.

2. 창조적 사고는 초월적 사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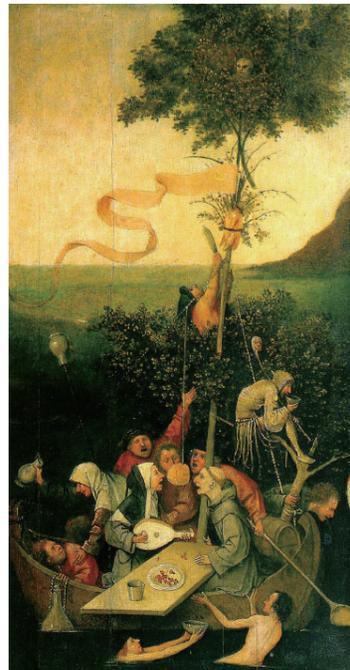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광인들이 탄 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창조성의 기원이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함몰되지 않고 초월적 사고를 하는 한 위대한 광대를 발견하게 된다. 유독 유대인 중에서 천재가 많은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유일신 사상 때문이다. 형상도 없고 이미지로도 표현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긍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창조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월적 사고를 통한 창조적 사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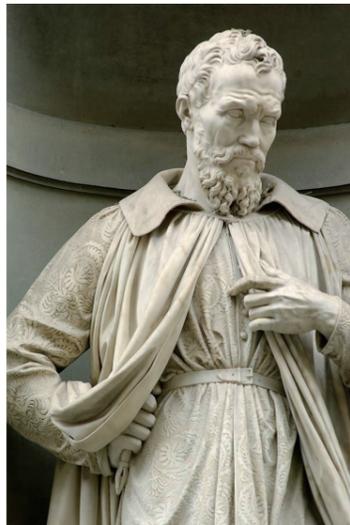
안 반 아이크
<붉은 터번을 한 남자>
안 반 아이크가 1433년에 그린 <붉은 터번을 한 남자> 런던 국립 미술관 소장.



마사초 <세례를 베푸는 성 베드로>
성 베드로가 겨울에 세례를 베풀고 있다.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있는 남자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화면 뒤쪽의 사람들도 추위에 몸을 떨고 있다.



히에로니무스 보쉬 <광인들이 탄 배>
히에로니무스 보쉬가 1485년에서 1516년 사이에 그린 그림. 파리 루브르 박물관 소장.



미켈란젤로의 동상
조각, 회화, 건축의 3대 조형예술을 통합했던 르네상스의 천재 미켈란젤로는 당대 사람들로부터 “신과 같은” 미켈란젤로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의 작품은 모두 천재적인 창의성의 결과이다.

3. 고정관념을 해체하라

창조적 사고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며 과거에 대한 해체 작업이다. 영국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붉은 터번을 한 남자>에서 화가와 그림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했던 안 반 아이크를 만나게 된다. 창조적 사고의 님은꼴은 스펀디가 주장했던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오직 편집광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텔의 창업자 앤디 그로브도 고정관념의 해체를 창조경영의 핵심으로 본다.

4. 메디치처럼 경영하라

피렌체 르네상스의 천재들은 모두 메디치 가문의 자비로운 후원을 받았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천재 예술가는 아예 메디치 가문의 양아들로 입양되어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로부터 철학수업을 받게 된다. 이것은 창조경영의 관리적 차원을 말한다. 창조경영을 위해서 굳이 경영자 자신이 창조적이 될 필요는 없다. 창조적인 인재를 발견하고 이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된다.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은 관리적 차원의 창조경영을 위한 르네상스식 모델을 제공해주고 있다.

5. 열정적으로 모방하라

천하의 미켈란젤로도 로마에서 발견된 고대 유물의 조각 <라오콘>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던 후대의 작품 중에서 우리는 앞선 시대의 조각들을 모방했던 흔적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미켈란젤로는 고대 유물을 면밀히 검토했다. 창조경영은 고립된 경영이 아니라 최고에 대한 열정적 모방에서 출발하는 비교의 작업인 것이다.

6. 최고를 향해 경쟁하라

창조경영은 이기기 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파라곤(Paragon, 최고 모범)을 향한 경쟁이 되어야 한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는 노력을 통해 직원들의 창조성이 진작될 수 있다. 미켈란젤로와 시대를 뛰어넘어 경쟁했던 엘 그레코의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서 파라곤을 향한 창조경영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

7. 창의적인 인재를 발견하라

펠리페 2세는 천재적인 화가 엘 그레코를 알아보지 못했다.

속 좁은 스페인 황제는 이탈리아 스타일을 선호했고, 엘 그레코는 그리스 출신이었다. 자신의 선입관 때문에 창조적인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창조적 인재의 특징들을 분석하여, 가능성과 끼가 넘치는 유능한 직원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8. 다양성을 인정하라

베네치아를 이끈 개방적인 분위기 때문에 티치아노와 같은 천재 화가가 탄생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는 항구도시였고 다름이 존중되던 곳이었다. 다양한 사상과 견해가 충돌하던 곳에서 창조성이 꽃피게 된다. 창조경영을 원하는가? 사람을 뒤섞어라! 서로 다른 생각들을 충돌시켜라!

9. 몰입의 환경을 구축하라

미켈란젤로의 대표작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화>를 통해서 몰입의 환경에 노출된 예술가가 얼마나 창의적일 수 있는가를 분석한다.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아니라 조각가였다. 조각가에 의해 그려진 프레스코 벽화는 세계 최고의 예술품으로 손색이 없다. 이런 천재적인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강한 내재적 동기로 인한 몰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들을 몰입의 상태로 몰아넣어라.

10. 적절한 여가와 보상을 제공하라

르네상스의 천재들은 창조적인 게으름을 즐겼다. 그들은 빛의 속도로 사고하면서, 동시에 거북이처럼 느리게 걸으며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여유를 부렸다. 휴식이 있는 곳에 창조가 있다. 금전적인 보상이 무조건 창조성을 진작시킬 것이란 생각은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휴가와 보상이 적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창조성을 저해한다는 역설을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된다. 그렇다.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창조경영은 경영자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적 차원과 직원들의 창조성 진작을 위한 관리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르네상스 창조경영>은 미켈란젤로를 위시한 천재들의 작품 속에 그 작품을 둘러싼 사건들에 숨어있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창조성을 분석할 뿐 아니라, 실제 경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와 실천사례를 함께 논의되고 있다. 창조경영을 꿈꾸는 경영자라면, 지금 당장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시라. 🌿

1.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 사업

-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
 - 기업은 창조적인 문화경영에 문화예술을 활용
 - 예술단체는 결연기업에 대해 사내공연, 공연(전시) 초대, 기업홍보, 복지시설 공연 공동 주최, 문화 예술교육 등 문화경영활동 지원

• **2009년 45개팀 결연목표**

- 2009년 상반기 중 24개팀 결연 확정 ※ 2008년 연간 29팀 결연



기업

- ▶ 현물지원/티켓 구매
- ▶ 사내 여유 공간 제공
- ▶ 직원 자원봉사 등



문화예술단체

- ▶ 결연기업 홍보
- ▶ 사내 공연 제공
- ▶ 직원 문화예술교육

2009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 **중소기업의 예술지원 참여 동기부여를 위하여 경남도와 공동 추진**
 - 중소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지원금을 추가로 제공
 - 기업의 예술지원 참여 확대로 공공예산의 2배 효과
- **예술단체 대상 매칭펀드 사업설명회 개최**
 - 2009. 3. 24 (화) 김해문화의전당
 - 2009. 3. 25 (수) 창원시선관위대회의실
 - 2009. 3. 27 (금) 진주시청 대회의실
- **2009년도 경남도지원금 총액 : 4억원**
 - 2009년 상반기중 267백만원 지원 확정



2. **회원사 협력 사업**

- **경남 미술작품 대여사업 (2009 신규사업)**
 - 도내 작가들의 수준높은 미술작품을 기업체에 대여전시
 - 미술작품 대여료
6개월(작품가의 월 1.5%적용), 1년(작품가의 월 1%적용) 단위로 책정
 - 미술작품 대여료 지원
회원기업일 경우 연1회 미술작품 대여료에 한해 경남메세나협의회가 100만원까지 지원
<회원기업 협력사업 전체 지원금 한도 연간 100만원>

- **회원사 예술동아리 지원사업 (2009 신규사업)**
 - 사내 예술동아리 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예술강사 등을 지원
 - 기업에서 희망하는 예술분야에 대해 1주일에 1~2회 정도 전문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강사 추천 등
 - 회원사일 경우 예술 강사로, 예술동아리 공연비, 예술관련 봉사활동비, 문학동아리 도서구입비 등 지원
※ 회원기업일 경우 연 1회 경남메세나협의회가 100만원까지 지원
<회원사 협력사업 전체 지원금 한도 연간 100만원>

• **회원사를 위한 찾아가는 공연 (문화송년회 등)**

- 기업내 각종 행사시 (창립기념일, 신입사원연수, 문화송년회 등)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위해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음악, 연극 등 문화공연 제공
- 상반기중 4개 회원사 공연 진행
- 공연비 지원
회원기업별 연간 1회에 한해 공연비용의 50%(100만원 한도)를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지원 <회원기업 협력사업 전체 지원금 한도 연간 100만원>



- **문화공감**
 - 회원사 대표 및 담당 임원에게 도내 문화예술회관의 우수 공연 관람 기회 제공
 - 하반기 실시예정

- **예술기행 사업 (2009 신규사업)**
 - 회원사 임직원 가족 대상 지역내 예술체험 테마기행 사업
 - 하반기 실시예정

- **지정기탁 사업**
 - 결연지원금 이외 회원기업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금 (행사협찬, 후원 등)을 협의회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회원사 협력 사업

문화나눔 사업

연구 및 홍보사업

경남 메세나대회

신규회원 모집

3.

문화나눔 사업

-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나눔티켓'
 - 도내 양육 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연 관람 기회 제공
 - 상반기 1회 실시
 - 2009. 5. 2 (토) 창원성산아트홀 <창원어린이국악단> / 112명 관람

• 찾아가는 메세나

- 학교, 사회복지시설, 농촌 등 문화소외계층 방문 공연
- 도내 20여개 읍면 학교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마당극 <뒤집기 흥부전> 공연
- 상반기 7회 공연 예정
- 2009. 4. 9 (목) /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 2009. 4. 18 (토) / 의령국민체육센터
- 2009. 5. 9 (토) / 합천
- 2009. 6월 고성/장성/거제/삼천포(예정)



4.

연구 및 홍보사업

• 경남메세나 발간

- 2008년 5월 창간 / 4회 발간
- 유관기관 / 도내 대기업, 중견기업 / 회원사 / 예술단체 등에 배부
- 내용 구성 :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활동 소개 등

• 문화경영 세미나 및 기획위원회 운영

- 문화경영, 문화마케팅에 관한 심포지엄 / 세미나 및 기획위원회 운영 (연 2회)
- 상반기 1회 진행 (2009. 2월)
- 하반기 (9~10월 예정)

<기획위원회>

구성 : 협의회 임원진 회원사, 결연회원사, 기타 추천 회원사의 실무진들로 구성 (약 50여명)

운영방안 : 협의회 사업방향 및 사업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 메세나 활동 사례 교류 등

• 문화경영 도서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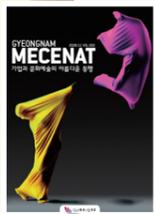
- 문화경영 관련도서를 연 1~2회 회원기업에 배부 (하반기 예정)

• 예술단체워크숍 (2009 신규사업)

- 예술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예술경영 워크숍 (하반기 진행 예정)

• 조사연구 사업 (2009 신규사업)

- 메세나 사업의 조사연구 용역 및 메세나 전문인력 교육



5.

경남 메세나 대회

• '2009 경남메세나상' 시행

- 메세나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헌신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
- 부문 : 기업 (기업출연 재단 포함) 부문, 개인 부문, Art & Business 부문, 문화예술영재 부문

• 2009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12월 초)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
- 진행내용 : 메세나 갤러리 (회원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사진 전시) / 경남메세나상 시상식 / 축하공연 / 우수 예술동아리 발표회 등



6.

신규회원 모집

- 도내 대기업 및 중견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남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타겟 기업 : 도내 대기업 / 중견기업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기업관련 단체

- 2009년 6월 현재 회원수 : 161명 * 2008년말 회원수 : 156명

가곡전수관

천년음악이
함께하는 풍류방, 중요무형문화재



경남 마산시 회원2동 무학산 자락에 위치한 중요무형문화재 제 30호 가곡전수관(관장 조순자,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예능보유자)이 천년의 역사를 가진 가곡의 아름다움을 전한다. 차와 음악이 함께 하는 2009 금요풍류(오후 7시 30분)는 20명 내외의 관객이 둘러앉아 감상하는 소규모 사랑방 음악회로 공연자와 관객의 경계를 허물며,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문화를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관람료 : 무료
- 해 설 : 조순자(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예능보유자 /가곡전수관장)
- 문 의 : TEL_ 055) 221-0109 Homepage_ www.igagok.org

공연 일자	주 제
6월 12일 / 7월 10일	도화(桃花)든 맑은 물에
8월 14일	한산섬 달 밝은 밤에
10월 9일	나랏말씀이 등극에 달아
9월 11일 / 11월 13일	홀로 앉아 금(琴)을 타고
12월 4일 / 12월 18일	동짓달 기나긴 밤을

난리굿패 어처구니

기업을 위한 무료공연
으리웃으리!!! 氣-UP 한마당



2005년 창단하여 전통연희(탈춤, 풍물 등)와 현대연극 등 다양한 예술장르와 조화롭게 소통을 꾀하고 있는 「난리굿패 어처구니」가 기업들의 氣-UP을 위해 무료공연을 준비하였다.

- 행사기간 : 2009년 6월 ~ 12월
- 장 소 : 찾아가는 공연 형식 (장소무관)
- 공연비 : 무료 (선착순 3개 기업 대상으로 무료 공연)
- 공연인원 : 30 여명
- 문 의 : 284-6607, 010-6627-6607
- 행사진행방향 : 체육대회, 단합회 등 행사에 공연지원
- 공연내용
 - 오라차차 마당밧기(길놀이 및 지신밧기)
탈패와 함께 풍물패들이 기업 경제회생과 노동자들의 무병무탈, 무사안일을 기원하는 지신밧기를 연다.
 - 오라차차 氣-UP 기원무
살풀이를 통해 열두달 삼백육십일 액을 막아내고 풀어낸다.
 - 창원오광대 공연
풍자와 해학이 깃든 창원의 숨결 - 창원오광대 공연을 재미있게 각색하여 신명나는 판을 구성한다.
 - 마당에서 신명나게 놀아보세(뒤풀이)
출연자와 관객 모두 함께 대농놀이(강강술래)를 통해 氣-UP 하는 시간을 갖는다.

극단 이루마

정기공연
"라이방"
작/이근삼
연출/이정유



- 일 시 : 10월 10일~17일(평일:8시 주말:6시) 총 8회 공연
- 장 소 : 이루마아트홀(인제대 정문에서 후문방향 50M)
- 문 의 : 322-9004
- 줄거리

서울 대학로 흥행작이며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연극 '라이방'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시민 택시기사들의 이야기다. 아무것도 모르고 서주었던 보증 때문에 억울하게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는 걱정과 회사 상무에게 사기를 당해 한 순간에 날려 버린 돈에 대한 걱정과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은 딸의 미국 유학비에 대한 걱정까지... 매일매일 돈 걱정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는 무엇일까? 김해 극단 이루마가 원작영화처럼 소주맛 나는 현실과 웃음을 버무려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

마산청소년관현악단

유명음악인 초청
장애인과 시민을 위한 나눔음악회



- 일 시 : 2009. 9. 26 (토)
- 장 소 : 마산 3·15 아트센터 대극장
- 내 용 : 유명음악인 초청 음악회로 지역 장애인과 시민을 위한 음악회
- 문 의 : 222-2858

숫대패사물놀이예술단

기획 공연



- 일 시 : 2009. 10. 18 (일) 오후 3시, 7시 2회 공연
- 장 소 : 창원 성산아트홀 대극장
- 공연내용
 1. 비나리와 진혼곡
 2. 삼도설장구
 3. 박치
 4. 태평무
 5. 경기민요
 6. 삼도풍물놀이
 7. 판굿
 8. 뒷풀이
- 문 의 : 284-5960

신규 임원 소개

(성명 가나다순)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부회장	경한코리아(주)	회 장	이상연	
	대경건설(주)	회 장	이윤우	
감 사	(유)의령산업	회 장	이동기	
이 사	STX조선해양(주)	경영지원본부장	강쌍원	
	한림건설(주)	대표이사	김의수	
	농협경남지역본부	본부장	이부근	
	경양석유(주)	대표이사	이인호	
	경남에너지(주)	경영관리본부장	정상민	

신규 회원 소개

(회원사명 가나다순)

구 분	회원사명	직 위	대표자	비 고
기업회원	경한코리아(주)	회 장	이상연	
	금강중기	대 표	손병철	
	문운수치과의원	원 장	문운수	
	미르치과의원	원 장	박 욱	
	(주)삼전건설	대표이사	정연문	
	(주)세진경남지점	대표이사	김장원	
	속편한내과	원 장	조중현	
	오션커뮤니케이션즈	대 표	장경국	
	우수AMS(주)	대표이사	전종인	
	쥬고쿠삼화페인트(주)	대표이사	시마다카츠키	
	흥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황동열	
	(주)화성계전	대표이사	김원철	
	PS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최민선	

Hi, Arts High Five!

기업을 위한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경남 미술작품 대여 사업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한국미술협회 경남도지회는 도내 작가들의 수준높은 미술작품을 기업체에 대여전시함으로써 기업에게는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지역 미술인에게는 창작의욕을 고취하여 경남의 미술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1부 제출
(경남메세나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미술작품 대여료 지원 : 회원기업일 경우 연1회 미술작품 대여료에 한해 경남메세나협의회가 100만원까지 지원
(회원기업 협력사업 전체 지원금 한도 연간 100만원)

기업내 예술동아리 지원 사업

기업의 예술동아리 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직원들의 예술활동 참여기회 증대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합니다.

- 시행방법 : 기업에서 희망하는 예술분야에 대해 1주일에 1~2회 정도 전문예술교육을 위한 예술강사 추천 등
- 대 상 : 도내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회원 5명 이상)
*신규 동아리 결성 가능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1부 제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회원기업의 예술동아리 활동비 지원
 - 예술강사로, 예술동아리 공연비, 예술관련 봉사활동비 등 지원
 - 사내 문학 동아리일 경우 도서구입비 지원 가능
 - 회원기업일 경우 1사당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회원기업 협력사업 전체 지원금 한도 연간 100만원)

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기업내 각종 행사시 직원 및 직원 가족을 위해 기업으로 직접 찾아가 클래식, 팝음악, 전통예술, 연극 등 아름답고 재미있는 문화공연을 제공해 드립니다.

- 대 상 : 회원기업 직원, 직원가족 및 고객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1부 제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공연비 지원 : 회원기업별 연간 1회에 한해 공연비용의 50%(100만원 한도)를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지원(회원기업 협력사업 전체 지원금 한도 연간 100만원)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행** 아름다운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

메세나의 어원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Caius Cilinius Maecenas)의 인명에서 유래
1967년 미국의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칭.



COVER STORY

거짓 포옹으로 물고기 잡기 (도자기/혼합재료) -김동균 작가-

미르치과외원과 결연한 창원미술협회는 4월 17일부터 5월 5일까지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여섯 번째 '창원 아시아 미술제'를 개최하였다.